

남양유업 Save The Earth 캠페인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1위인 대한민국. 코로나 시대로 간편식이 늘어나고 배달 문화가 급속도로 자리 잡으면서 플라스틱 폐기량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폐기량은 연간 100억 개에 달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크기가 작아서 쓰레기 선별장에서 선별이 안 돼 재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폐기된 빨대는 소각될 경우 환경을 파괴하고 길거리에 버려지게 되면 동물들이 삼키거나 찢릴 우려가 있어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활동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최근 남양유업이 환경을 지키기 위한 'Save the earth' 캠페인의 첫 번째 활동으로 '빨대를 돌(doll)려줘' 활동을 펼쳐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캠페인은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재활용플라자'와 올바른 소비 활동을 통해 지구를 지키는 일반 소비자 모임인 '지구지킴이 쓰담쓰담'과 함께 진행한다.

빨대를 돌(doll)려줘 활동은 버려진 양말목을 재활용해 만든 인형을 갖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버리지 않고 모으는 캠페인이다. 모인 빨대는 남양유업과 서울재활용플라자가 수거해 또 다른 재활용

제품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소재 은행에 제공하는 '자원 순환 캠페인'의 일환이다.

남양유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빨대를 모으는 '인형'을 나눠줘 해당 캠페인을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캠페인 활동은 지난 6월 남양유업을 겨냥한 소비자들의 '빨대는 선택입니다'라는 빨대 반납 운동을 계기로 시작됐다. SNS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소비자들의 반납 운동은 기업들의 플라스틱 저감 요청으로 확대됐다.

이에 남양유업은 소비자들을 남양유업 본사에 초청해 플라스틱 저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남양유업 측은 이날 대화의 자리에서 거래처에 무상 공급되고 있는 빨대 30% 절감, 일부 제품의 친환경 빨대 시범적 도입, 테트라팩 음료 일부에서 빨대 제거 등 제품 개발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할 것을 약속하고 시행해나가고 있다. 남양유업은 소비자들이 반납한 빨대를 버리지 않고 서울재활용플라자 소재 은행에 기부하고, 서울재활용플라자와 협업해 빨대 반납함 제작과 'Save the earth' 캠페인을 진행했다. 남양유업은 제작된 빨대 반납함을 서울시 곳곳에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